

<시기> : 2099년 8월

<등장인물>

박씨(41세, 남) 노동자/밀수꾼

석씨(43세, 남) 노동자/밀수꾼

연구원(48세, 남) 과학자

경비A, 경비B(나이 미상, 남) - 경비

그 외 엑스트라 5명(남녀불문)

S#1 검문소

구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개조한 검문소다 각각 5개의 통로에서 각각의 차가 검문소 직원들에게 검문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 하이패스라고 적힌 아치를 착각한채 검문소를 그대로 지나갔고 그 직후에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 알 수 없는 총알을 맞은 차가 균형을 잃고 빙글 돌다가 차벽에 그대로 들이 박는다.

직후 톨게이트 하나에 새 하얀 승용차 하나가 맨 왼쪽의 톨게이트로 진입하는데 그 차가 박 씨와 석 씨가 탄 자동차이다.

검문소 직원 : (모니터를 바라본 채)목적은?

박 씨 : 등산입니다.

검문소 직원 : 등산?(선글라스를 벗는다.)아 아저씨셨구만 이번엔 또 뭘 밀수할지 참 기대가 된단 말이지

박 씨 : 거 말 좀 예쁘게 합시다. 내가 갖고와봐야 산나물이나 폐품들이 고작이지 누가 보면 뭐 불법적인거라도 들거오는 줄 알겠네

검문소 직원 : 내가 유도리 있게 넘어가주니 망정이지 차 트렁크안에 있는게 산나물인지 대마인

지 솔직히 열어봐야 알 수 있잖아요?

박 씨 : 내가 밖에서 가져온게 진짜 대마였으면 당신도 진작에 모가지 날아갔을거야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인 의미로 말이지

검문소 직원 : 그러니 서로 상부상조 서로 돕고 살자는거 아닙니까 내가 뭐 큰거 바라나 줘어줄 것만 줘어주면 곱게 보내준다니까 그러니 더도 덜도 말고 15000만 내고 후딱 지나가십쇼

박 씨 : 얼마전에는 12000이더니 언제 또 올랐어 누군 뭐 땅파서 장사하냐고

검문소 직원 : 당신 땅 파서 장사하는거 맞잖아요 자꾸 따지면 오릅니다.

박 씨 : 12000

검문소 직원 : 18000

박 씨 : 13000

검문소 직원 : 20000 이 이상 안봐줍니다. 경찰에 신고할테니 자신있으면 계속해보쇼

(검문소 직원이 전화 수화기를 든 채 차량쪽으로 응시한다)

석 씨 : 이보게 그냥 주고 갑세 저런 사람이랑 오랫동안 엮여서 좋을거 하나도 없지 않은가.

박 씨 : (크게 한숨을 쉰다.)하이고 참나 에라이 씨팔 20000 가져가라

검문소 직원 : 태도가 마음에 안들어서 25000...[박 씨 : 씨발놈아!](한숨을 크게 쉬며)아닙니다 강 얼른 내고 가시죠

(박 씨가 창문으로 20000짜리 지폐를 올리고 다시 차의 창문을 올린다 창문이 다 올라갈 즈음에 검문소 직원이 다시 부른다.)

검문소 직원 : 잠깐

박 씨 : 하아아아아...또 뭔데?

검문소 직원 : 늘 주던거 깜빡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주고 가셔야죠

(박 씨는 검문소 직원을 잠시 찌려본 다음 한숨을 쉬며 차에 있던 시가 상자에서 시가 두 개비를 꺼내서 검문소 직원에게 건넨다.)

검문소 직원 :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문소에서 하얀차가 떠나며 점차 멀어진다.

S#2 차량 내부

박 씨 : 하 시발 저 새끼는 매주 마다 저렇게 사람을 뺑치게 하는 건지

석 씨 : 너무 화내지 말게나 저런 놈이니 저런 곳에서 일하는 거 아니겠는가?

박 씨 : 저런 새끼가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급여를 받는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하
는거라고는 저렇게 사람 열받게 만드는 일이면서 정작 지들있는 곳에는 에어컨까지 뽕뽕하게 틀
어놓고 있더라

석 씨 : 어차피 재들도 우리 보다 급여 조금 더 받을 뿐이지 그래 봤자 재들도 우리처럼 밑바닥
신분이야 뱃똥 우리 우리대로 쓰레기장 뒤져서 좋은 거 하나 건지면 그대로 인생역전 할 수 있을
지도 모르잖아

박 씨 : 쓰레기장에서 인생 역전할 물건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게 더 이상 하니까 계속 쓸데없
는 소리 할거면 그 아가리 닫고 강 잠이나 자고 있어

(박 씨가 카 오디오를 작동시키자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차 뒷편에는 멀어져 가는 검문소 뒤로 빌딩들이 모여있되 가운데로 갈 수록 더더욱 건물들 높이
가 높아져서 정 가장 높은 건물들은 이미 구름을 뚫고 있다.)

페이드 아웃

S#3 강가

페이드 인

길거리에 버려진 채 이끼가 자라서 함께 썩어가고 있는 폐차 및 일부 폐건물과 함께 대부분의 울
창한 식물들과 맑은 물이 있는 강가에 박 과 석이 탄 차량이 도착한다. 두 사람은 차 트렁크에서
접이식 의자 둘 가스버너 및 여러 식기들을 꺼낸다.

석 : 그거 푸른도시락 아냐? 안그래도 위생문제 말 많던데 아직도 사먹네?

박 : 뭐 먹는다고 죽기야 하겠나

박 과 석 옆에 있던 가이거 계수기¹가 시끄럽게 울린다 석 씨가 자신의 가이거 계수기를 도시락
에 갖다 대니 더욱 크게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울려퍼지고 있다.

석 : 다음부턴 그거 사 먹지마

박 : 그래도 이왕 버리기 아까운데 이거 까지는 먹고 말지 그런데 자네 그 도시락은 못보던 브랜

¹ 가이거 계수기(Geiger counter) 방사능 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드인데

석 : 몰라 '화성' 이게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거 같아서 샀어 뭐 맛이 조금 이상하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몸에 아무 이상도 없어서 잘 사먹고 있어 근데 '화성'이라니 이 도시락에서 화성에서 만든거야?

박 : 여보셔, 석 씨 방금 건 농담으로 듣겠어 그니까 입 닫고 밥이나 먹어.

석 : 그건 그렇고 여긴 그래도 보호장구 안써도 그냥 문제는 없겠구만

박 : 애초에 이 땅은 전쟁 때 핵 맞은데가 거기 하나 빼곤 없잖아, 하필 맞은게 옛 정부 수도라서 그렇지 근데 왜 탄놈들은 여러발 맞았다던데 이 나라는 한발로 끝난겨? 이곳에 핵 쏘만한 나라가 최소한 3곳은 되는거 같아보이는데

석 : 그냥 한발로도 충분해서 그런거지 수도에 한방 맞은걸로 대충 의전서열 20위인가 22위인가 까지 썩 염라국으로 강제이민 당했고 게다가 수도에만 당시에 나라 온갖 인프라가 썩 몰렸다보니 아비규환에서 지금 이 꼬라지 비스무리하게 만드는데 5에서 10년 정도는 걸렸다는데

박 : 그럼 이 나라 진작에 다른 나라에게 점령 당했어도 할 말 없었겠네

석 : 그랬을테지 그런데 그 놈들도 여기서사는 놈들이 지들끼리 혼란속에서 자멸하긴 커녕 바퀴벌레마냥 아득바득 재건할 줄은 몰랐을거야

박 : 근데 복구라니 전쟁 때문에 5~10년 치고는 상당히 살만한 형태로 복구되지 않았냐?

(박 씨가 가리킨 방향은 산 너머로 거대한 건물들이 작게 늘어선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다.)

석 : 시류를 잘 읽었던 일부 생존한 정부 인사나 기업인들 군인들이 썩 모여서는 임시정부를 세우고는 그걸 기반으로 경기 지역외의 남은 지역들을 안정화 시켰지 그리고 당시 그 양반들과 그 자식새끼들이 지금의 상층 나으리들이고 높으신 양반들 말로는 지들이 100년전부터 이 사달이 날걸 알고 대비하고 있었다는데 그 시절에서 100년전이면 이 나라가 처음으로 동족상잔 터지고 나서 아주 거지같이 살던 시절인데 대비를 어떻게 시작해

박 : 근데 그렇게 나라꼴 복구 시켰다는데 왜 아직도 우리 같은 노동자들은 이 모양인거지?

석 :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부 수반들 대부분이 기업인들이야 그니까 한 통속인거지 게다가 이전의 나라는 엉망이었다고 하면서 정부 자체를 전복해 버렸어 수도가 통째로 사라지면서 뭐라 말을 할 놈들도 다 불귀의 객이 되었다보니 헌법이고 법률이고 온갖 정책들을 통째로 새로 쓰게 된거지 대부분은 옛 정부의 것을 계승한걸로 알려졌으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 대다수는 현 시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폐기되고 새로 재작성 되었어 그게 우리가 이 모양이 꼴로 사는 이유고

박 : 근데 니가 말한거 전부 진실이긴 하나?

석 : 검증은 스스로 해야지 남의 말이라고 막 믿었다간 큰코 다친다. 내가 무슨 역사선생도 아니고

(석, 도시락을 다 먹은 다음 도시락과 나무 젓가락은 강가에 대충 버려둔다. 박 씨도 같이 일어난다.)

S#4 쓰레기 매립장

두 사람은 방독면을 쓴 채 쓰레기더미를 하염없이 파내리고 있었다.

석 : 도착했네 여기가 바로 쓰레기 매립장이야 오래전에 있던 다양한 쓰레기들이 모여있지 여기서 잘만하면 귀한 물건도 나올 수 있는거야

박 : 알아 잘 안다고 망할놈아 그걸 누가 모르냐고 아무리 파봤자 쓸모도 없는 쓰레기들이 더 많은데

석 : 그래서 지난번에 니가 한번 최대한 굵어 왔다고 해서 내가 다시 갔다왔더니 최소 몇 만원 어치 구리선이 몇 킬로그램이나 나왔더라? 총알도 만들고 전선도 만드는 구리가 니 눈에는 그렇게나 쓸모없는 쓰레기로 보이더냐?

박 :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만하자

석 : 그 눈 똑바로뜨고 납도 잘 찾아봐 그것도 충분히 돈 되는 물건이니까

박 : 이렇거면 강 서울로 올라가지 그 머시냐 핵무기들은 반감기란것도 짧다던데 50여년 정도 지났으면 방사능 문제는 어지간해선 해결되지 않았겠나?

석 : 반감기는 지랄 염병을 떠네 씨발 그게 무슨 만능이라도 되는 줄 알아? 핵무기들이 보통 반감기가 짧은건 맞다 쳐 근데 그것조차 이 기간이 지나면 '방사능이 싹 사라집니다'가 아니라 '방사능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라고 문장과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긴해? 게다가

박 : 그런건가?

석 : 그런건가는 지랄 그리고 핵무기 맞고 반감기 지나서 방사능 수치 내려갔다 쳐 근데 정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옛 수도로 파견되는 조사단들은 어떻게 감당할래? 걸렸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머리에 총알 박히는거면 꽤나 자비로운 수준이지

박 : 알겠네 나도 그냥 원래 할 일에 집중하지

석 : 쓰레기장 밖에 버려진 차들 한 두대 있던데 필요하다면 확인해놔 거기에 기름이라도 들어 있을지 모르니까

박 : 그럼 가서 확인해 보겠네

석 : 기름 있다고 멋대로 펌프 가지고 빼내려고 들지마 보안장치 해체 안하면 시간낭비야 그거 기름 마음대로 빼가게 둘 정도로 자동차 기술 만만하지 않으니까 게다가 정전기라도 났다간 그대로 세상하직하는 거야!

박 : 알겠어 내가 이 일 하루이틀 하는걸로 보이냐?

석 : 네가 일 꼬이게 만드는 것도 하루이틀이 아니니까 이런 소리 하는거야!

S#5 강가

(박과 석 강가에서 준비해온 생수를 가스버너로 끓이고 있다. 성냥이 들어갈법한 작은 종이갑에서 꺼내는 검은색의 작은 정육면체는 오래전 찻잎이나 티백을 대체하기 위한 합성재료다. 그걸 각자 준비한 머그잔에 넣고 찻숟가락으로 저은 다음 한모금씩 천천히 마신다.)

석 : 오늘 수확은 영 글렀구만 잘해봐야 몇 만원 정도가 고작이겠어 이걸로 대체육은 커녕 인조 채소 사는 것도 글렀네

박 : 애초에 우리 옛날엔 취미 생활 목적으로 캠핑했었잖아 폐품 줍는건 부업이었고 강 이런 일 손 씻자 애초에 이런거 줍는게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 갈 수록 여기서 줍는 물건 값보다 검문소에 상납하는 뇌물 값이 더 많잖아 게다가 거기 미친놈이 이젠 가면 갈 수록 요구사항이 뽕 세지는 거 있지 무슨 공문이 내려와서 검열이 뽕세졌다던가 그런 소리 하면서 말이야 이제 나아가 가까운 사람들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자네는 아니잖아

(석, 주머니에서 껌을 꺼내서 씹기 시작한다.)

석 : 그러게 우연히 좀 비싸다 싶은거 주웠다고 아무 계획도 없이 부업으로 하는게 좀 전문적으로 한다는 놈들은 금속탐지기는 물론이고 아예 최소 인원이 5명인데다가 총기류는 기본으로 들고 다니고 요즘 들어보니 이런 집단들이 많아지다 보니 아예 지들끼리 총질해서 뽕기도 한다더라 아예 도시 바깥 자체가 경찰력이 안 닿고 있다보니

박 : 그래 우린 이 지랄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단 말이야 안그래도 갈 수록 업무 강도도 심해지고 있는데 최소한의 잘난 법 때문에 강제로 보장되어 있는 주말에는 그냥 폭 쉬어야지 안그래도 그 법안도 폐지될거라며 말이 많던데 이런 나이 될 수록 더더욱 다치기 쉽고 병걸리기 쉬워진다더라 생수 다 떨어졌으니 물 좀 퍼오겠네

(박, 물쪽으로 가서 물을 퍼올리려 하다가 이내 멈춘다.)

박 : 이거 물이 이상한데? 이리 와봐

(석, 박 씨 옆으로 따라 붙는다.)

박 : 봐봐 무슨 기름 흘린것 마냥 물에 무지갯빛 비스무리한게 떠 있잖아 아침엔 미리 챙겨온 생수로 때웠으니 신경을 못쓰는거지

석 : 이 상태로 봐선 끓인다고 해도 소용없겠네 강 물 버려 이 근방 수원지가 오염되어 있는게 뭐 하루 이틀이냐고

박 : 그래도 평소 같았으면 정수키트를 쓰던지 아니면 끓여서 마시든지 하면 되었던 말이지

석 : 아까 말했던 생화학무기인가 먼가 탓이겠지 애초에 청정지역도 아니고

박 : (손으로 강 상류 방향을 가리키며)그럼 저기 있는 공장은 어떻게 설명할건데

(석 씨 상류 쪽을 본다.)

석 : 뭐시여 저런데 공장이 있었어? 여기가 옛 수도랑 가까운 편이긴 했지만 공장을 세울 입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박 : 난들 알겠나 대강 보아하니 전쟁 이전에 폐쇄된 공장 같은데 애초에 그 시절엔 한참 환경이 어찌니 하는 시절이란 말이야 대놓고 폐수를 버릴 수 있는게 아니었을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 근방에 총소리가 난다 한들 뭐 상황파악할 경찰이 있겠냐고

석 : 그럼 저 공장이 뭐 최근에 가동된 적이 있다. 그런 소리라도 할 셈인가?

박 : 아니지 지금도 가동중일 수도 있다는 소리를 할려는 거지

석 : 그래서 어찌려는 건데 그냥 무시하고 갈길 가면 안되는건가? 아까전에 손 털자고 한게 자네 아니었어?

박 : 굳이 낡은 공장시설에서 뭔가를 한다는건 상당히 뒤가 구린 짓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석 : 그렇겠지 저런 일에 괜히 들이 댔다가 목숨부지 하기도 힘들다는 건 만인이 아는거 아니겠나?

박 :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봐 저기서 뭔가 귀한걸 옮기고 있다던가 아니면 희귀한 기술을 연구한다던가 살짝 들어와서 슬쩍하면 되는거 아닐까?

석 : 저기서 연구하는게 귀한거라는 보장이 어딴데 깃해봐야 잡다한 공산품이나 제조하는 시설일 가능성은

박 : 짜잘한 공산품이면 시내 공단에서 생산하면 되는거고 연구시설이면 중층이 더 고급진 설비

들이 많을텐데 굳이 저런 입지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겠나?

석 : 흔한 양아치들이 점거하고 있을 가능성은?

박 : 나갈 때 마다 검문소 거치는 걸 잊지 않았나? 불순분자다 싶은 놈들은 쉽게 안보내주는 거 알잖아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라 상대국의 간첩일 수 있는 일이고

석 : 그럼 내가 자네를 버리고 그냥 갈 것이라는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나?

박 : 지금까지 왜 내가 운전했을까? 저 차가 내꺼이기 때문이 아닐까?

석 : 그럼 내가 자네 열쇠를 뺏는다면?

박 : 내 차 수동기어야 이 사람아, 반감기인지 나발인지는 잘 알던 놈이 내가 수동 쓰는 건 도대체 왜 모르고 있는건데? 게다가 나 버리고 혼자 들어가는 거면 검문소는 어떻게 지날건데? 차내 화물 검사 안 받는 이유가 말이야 내가 그 새끼한테 뇌물 주기 때문이란건 잊고 있었지?

석 : 예라이 졌다 이 사람아 한번 들어가보자고

박 : 저기 있는게 뭔지 한번 확인해보고 별거 아니라면 그대로 가자고 약속하지

(두 사람, 강가에 있던 캠프를 해체하고 차는 그대로 둔 다음 공장 방향으로 몰래 접근한다.)

(디졸브)

S#6 공장 앞

(무장한 경비 두 사람이 공장 입구 앞에서 서 있을 때 천막이 쳐진 1톤 트럭이 후진 하며 도착한다. 발라클라바로 얼굴을 가리고 자동소총을 휴대하고 있다.)

경비A : 천천히 후진 천천히 정지! 거기서 5명만 하차 시킵니다. 아무나 5명 나오세요 안나오면 1분마다 한명 씩 총살합니다. 우리가 농담하는거 아니란걸 몰라서 너네들이 여기에 끌려온거 아닙니까!

(트럭에서 다섯 명이 천막을 헤치고 나온다. 각각 70은 넘어보인 초로의 노부부와 40넘은 중년부부 그리고 막 성인이 된 20 정도의 청년이 나온다.)

경비A : 내렸으면 한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는다.

경비B : 선배님 갑자기 여기에 저 사람들은 왜 온겁니까?

경비A : 몰라 인마 보고서에선 또 내란선동 머 어찌고로 적혀 있었는데 그래도 지하로 끌려간 새끼들 보아야 나올거 아냐

경비B : 저희 건물지하 말입니까?

경비A : 아니 그 지하 말고, 정부에서 또 뭐 건설한다는 그런거 있어 어차피 우리랑 상관없으니 신경끄고

(경비A, 5명의 사람들을 바라본다.)

경비A : 자 이미 진작에 대부분 빼앗겼을테지만 들어가시기 전에 단말기, 지갑, 귀금속류, 또는 뭐 이상한 무기류 혹시 있으십니까?

(경비B가 바구니를 꺼내서 들고 온다.)

경비A : 그럼 이 친구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다시는 못 돌려 받으실거 잘 아실테니 저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자~알 쓰겠습니다. 없어요? 후배야 금속탐지기 들고 와라 혹시라도 뭐 나오면 **간뇌도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 저 분들에게 숙지 잘 시켜드리고

경비B : 알겠습니다.

S#7 공장 앞 수풀

(박, 석 두 사람은 수풀 속에 숨어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

석 씨 : 저 새끼들 뭐하는 건데?

박 씨 : 저 새끼들도 문제지만 아까 그 트럭로고 멀어서 잘 안보였다만 익숙한 로고였던거 같은데 혹시 뭔지 아는지?

석 씨 : 아니 저기 저 놈들 보느라 신경도 못 썼지 게다가 딱 보니까 뭔가 뒤가 구린 일 같은데 그런 차량에 대놓고 내가 범인이오 하고 로고를 박아넣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박 씨 : 그럼 내가 착각한걸지도 모르겠군 근데 목소리 낮춰 들키면 우리 둘다 죽는거야 저기 경비 같아보이는 두 놈이 총도 들고 있잖아

S#8 공장 앞

(경비B 중년 남성의 주머니를 수색하던 중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자마자 바로 등뒤에 있는 경비A에게 소리친다.)

경비B : 선배님 잠시 와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경비A : 타당한 이유 없으면...

경비B : 한명의 주머니에서 달걀이 나왔습니다.

(경비A 건들거리던 자세를 고치고 표정이 진지하게 변해간다.)

경비A : 확실해? 합성달걀 아니야?

경비B : 합성은 플라스틱...아니 폴리...(말을 더듬는다)하여튼 그런 재질로 포장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석회질 같습니다.

(경비A 등뒤로 돌아 크게 한숨을 쉰다.)

경비A : 단말기로 난각번호 확인가능하지?

(경비B 단말기로 무언가를 입력한다.)

경비B : 산란일은 지금으로 부터 일주일 전이고 농장번호 검색해보니 주로 상층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에게 납품하는 식품회사입니다.

경비A : (한숨을 크게 쉰 다음 중얼거린다) 묶어

경비B : 잘못들었습니다.

경비A : (크게 욕박지른다)저 새끼들 당장 묶어!

(경비A가 욕박지르자 경비B가 당황해서 총을 든 채 엉덩방아를 찰다가 황급히 다시 일어선다.)

경비A : 저게 단순한 달걀 절도로 보여? 우리가 인계 받을 인원은 단순한 내란선동범 그렇게 들었어 그런데 고위관료용 물자 횡령범 일당이 잡혀왔어 이게 뭘소린지 아직 이해 안되지? 상층관련 범죄들은 전부 불고지죄 적용되는거 알지? 즉 이 새끼들 도망치면 우리 둘다 뒤지는 거라고! 당장 보고서 양식 가져와 본사에 연락해서 해당 인원들 다시 반송한다고 연락을 해야...

연구원 : (목소리)그만 그만 호들갑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비 둘이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몸을 돌린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걸어 나오고 있다.

연구원 : 무슨 의원 나리들의 특별제작된 시계를 횡령한것도 아니고...(연구원, 헛기침을 한다.)상층 관련 범죄는 불고지죄 적용되는거 그거 까진 맞는데...애초에 이 인원들을 경찰한테서 인계 받은 놈들인데 그거 하나 확인 안했겠어요? 그런다고 경비하는 당신네들 안죽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던 일 마저 끝냅시다. 달걀은 저 주시고요.

연구원 경비A한테 받은 달걀을 머리로 깬다. 삶은 달걀이었다.

연구원 : 안그래도 이런저런 준비도 하느라 바빠서 아침밥 먹는걸 깜빡했는데 다행이네요(삶은 달걀 절반을 베어문다.)아 싱거운데 (사람들 쪽으로 바라보며) 누구 소금 있는 사람? 삶은 달걀에 소금이 있어야지! 다들 소금도 구입 못할 정도로 가난해요?(절반만 남은 달걀을 한입에 먹는다.)

(달걀을 다 먹은 연구원 주변 경치를 둘러보다 문득 수풀 쪽을 바라본다. 그 직후 바닥에서 자그마한 조약돌을 집어들어 수풀을 향해 던지자 맑은 타격음이 들린다. 박 씨, 수풀에서 튀어나온다)

박 씨 : (고통스럽게)악!! 아!!!(이내 연구원 쪽을 바라보고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비명소리를 멈춘

다.)

연구원 : (화색을 띤 채 경비A와 B를 번갈아 바라보며)봤죠? 저 잘 던지죠? 역~시 내 실력 녹슬지 않았잖아요?

(박 씨 앞으로 경비A가 다가온다. 옆에 석 씨는 가만히 두 손을 든 채 서 있다.)

(박 씨 정면 모습을 비춘다,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다. 석 씨 경악한 표정으로 박 씨랑 경비를 번갈아 본다.)

S#9 지하실

(박 씨가 바깥에서 어색한 웃음을 짓던 표정이 물 속에서 담가진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얼굴로 전환된다. 머리가 물 밖으로 끌어내진다. 경비A가 박 씨의 머리채를 잡고 있다.)

박 씨 : 푸허억!

(카메라 연구원을 비춘다. 박 씨 바로 앞에 서있다.)

연구원 : 선생님 ,저희가 그리 어려운 질문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디서 선생님 일행을 보냈는지만 말씀드리면 되는거예요 선생님도 괴로우실텐데 굳이 이렇게 시간낭비하는건 서로 손해밖에 되지 않나요?

박 씨 : 모른다고! 우린 그냥 폐품이나 줍는 사람들이라고

연구원 : 여전히 말을 안 들으시네, 한번 더 해요

(경비A 즉시 박 씨의 머리를 다시 물속에 쳐박는다. 경비B 지하실로 들어온다.)

경비B : 두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 : 안에는 뭐가 들었나요?

경비B : 작업용 목장갑, 구리전선 꾸러미, 오래된 폐가전 제품, 가스버너 및 휘발유 말통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상세한 제품 내역은 서류로 정리했습니다.

(경비B가 서류를 건네지만 연구원 받고 가까운 책상에 얹어 둔다.)

연구원 : 아니 이런거 서류로 정리하고 인쇄하겠다고 그렇게 오래 걸린거예요? 그냥 입으로 다 말하면 되는걸 어이쿠야, 그럼 뭐 무기 같은 수상한 것도 없고요?

경비B : 방금 전 두 사람에게서 압수한 단말기 및 여행허가증, 방독면, 휴대용 가이거 계수기 외에 특별히 수상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갑에도 소액의 지폐들만 발견했습니다.

연구원 : 그럼 우리 진짜 허탕친건가요? 재네들이 산업스파이 그런게 아니라 진짜 지나가던 민간

인이다 이거죠?

경비B : 지금까지 찾아낸 물건들을 고려하면 맞는것 같습니다.

(연구원 멍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서있다가 경비A를 향해 외친다.)

연구원 : 지금 그 사람에 물에 얼마나 담군거죠?

경비A : 지금 막 1분 초과했습니다!!

연구원 : 빼세요 얼른

(경비A 박 씨의 머리를 물 속에서 꺼낸다. 박 씨 급하게 숨을 들이쉬려다가 심한 기침을 한다.)

연구원 : 어디 봅시다. (박 씨와 석 씨의 여행허가증을 바로 본다.) 박재호 씨, 석정근 씨 맞으시지요? 음...그게...저희 측의 착오로 인해 불필요한 불편을 끼친점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 씨 : 아니 착오? 그럼 내가 별것도 아닌걸로 지금까지 물고문을 당했다고?

연구원 : 그야 당연히 여기가 기밀시설이다 보니 이런 일에는 저희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엔 무슨 일이신지? 일행분은 꿀과 벌레가 넘치는 특별실에 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박 씨 : 나랑 석 씨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강물로 물을 끓일려 했는데 물맛이 이상한거야 그래서 둘러보니 당신네 시설에서 멋대로 버린 폐수가 원인인가 싶어서 보러온거지

연구원 : 저희 측에선 강에다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나오는 업종이 아니기도 하고 방금도 말했다시피 시설의 특성상 평범하게 버리는 폐기물들도 기밀유출의 위험이 있어서 본사에서 보낸 인원들이 직접 수거해가거든요

경비B : (연구원을 향하며)잠시 두 사람의 여행허가증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연구원 : 갑자기 남의 말에 끼어드는 사람 안 좋아하는데.(연구원, 경비B에게 허가증을 건넨다.)

경비B : (알게 탄식하며)역시...이 허가증들은 위조된겁니다. 보통 허가증에는 위조 방지목적으로 홀로그램 및 IC칩을 내장하는데 여기엔 홀로그램 조차 없는 단순한 플라스틱 쪼가리입니다. 검문소 직원이 단순히 명칭했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연구원 : 그럼 그 두 사람 이름도 진짜가 아닌가요?

경비B : 애초에 도시 밖에서 폐품들을 밀수하는 업자들 입니다. 조금 추궁해보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방에 있는 나머지 한 사람을 데려오겠습니다.

연구원 :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이미...다른 절차로 갈 생각이라...

(연구원 박 씨를 향한다.)

연구원 : 자 그러면 가짜 박재호 씨 혹시 꿈 같은거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

박 : 말 돌리지마 이 새끼야 니가 멋대로 함부로 사람 고문하고...

(총알이 박 씨 옆으로 튕긴다. 그 앞에는 연구원이 권총을 들고 있다.)

연구원 : 아직도 상황판단을 못하고 계시면 당신이 곤란하지 저희가 곤란한게 아닙니다. 그니까 질문에 똑바로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동네 주민이 길가다가 총 맞아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시대에 여기서 당신하나 죽는다고 누가 신경을 써요? 아니 고작 공무원 몇명에게 뇌물 겨우 바치고 사는 입장인 주제에 우리보다 뒷배가 더 센놈이라도 있냐구요? 그러니 다시 물어봅시다 꿈 같은 거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박 : 꿈은 무슨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으면 감지덕지한거지 내가 태어난 시기가 전쟁 끝난지 얼마 안된 시절이었거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얼굴은 본 적도 없고 이상한 시설에서 키워지다가 16되니 졸지에 내보내져서 온갖 막노동판이나 전전긍긍하며 나이 사십 넘게 쳐먹고도 평소에는 공장판 좀 시간 남아돌때는 돈 되는 쓰레기들 밀수하고 팔아넘기면서 겨우 살고 있고

연구원 : 갑자기 후배 정우 생각이 나네요 그 머시냐 얼마 전에 진호인가 진돗개인가 하는 환자 들어왔을 때 갑자기 기계 이식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정우 녀석이라면 모를까 내가 분명 그 환자 관련 프로젝트 총 책임자여서 따지려 간 결과 지금 있는 폐공장으로 좌천을 당했는데 그래도 좌천한 대신 내가 계획한 연구 지원해주겠다고 온갖 것을 다 지원해 주더라구요 정우 녀석은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임상실험할 대상을 아직도 구한다던데 확실히 알바비는 하층 평균 급여 감안하면 높더라구요

경비A : 선생님 그거 사망율도 마찬가지로...

연구원 : (손가락 하나를 입가로 갖다 붙이며)썩!

연구원 : 근데 우리 일하는 곳은 (과장된 목소리)무려! 우리는 알바 같은거 안 구하고 근처 경찰들하고 협약 맺어서 사람들 제공받거든요 이번에 보충된 사람들은 다행히 눈은 안 뽑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혀는 결국 다 뽑혀있고 좀 헛바닥도 멀쩡한 사람들로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뻔뻔하게도 제 급여주시는 분이 곧 반년 정도 뒤면 서기 2100년이랍시고 그 때 딱 맞춰서 성과를 컨소시엄에 발표하길 원하셔요 이미 6번 실험 다 마쳤는데 이제 당신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럭키 세븐 예감이 좋지 않나요?

박 : 그게...

연구원 : (말을 가로채며)아무 말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미 결정난 사안이라 그냥

확인차 질문해본거 뿐이니까 근데 지금 천천히 알려드릴 정도로 여유는 없어요 그러니 속전속결로 끝냅시다.(경비A를 가리키며)얼른 합시다.

(경비A 소총 개머리판으로 박 씨의 머리를 내리친다.)

(페이드 아웃)

S#10 오염된 넓은 공간

(페이드 인)

(기본적으로 하얀 공간이지만 광원의 부족으로 인해 주변이 어둡게 보이며 각종 혈흔 및 육편들이 주변에 널려있으며 공간 곳곳에는 각종 고깃 덩어리가 널려있다. 그곳에서 박 씨는 머리를 붙잡으며 애써 바닥에서 상반신만 겨우 일으킨다. 하얀 공간 윗부분에는 유리로 밀폐된 발코니가 있으며 거기엔 연구원이 서 있다.)

연구원 : (E)작업 시작하기 전에 아까전에 삼천포로 빠져버렸던 꿈 이야기 계속해볼까요?

박 씨 : 닥쳐

연구원 : (E)역시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사는 동네 표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세상**' 헛소리 같아보이는 거 아시는데 거짓말 자주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자' 술고래가 '술 적당히 마시자'같은 표어를 자기 집에 걸어놓을 수는 있잖아요 정작 저는 살면서 명확한 내 인생의 명확한 비전이 떠오르지는 않았는데 그 때 사장님이 제게 오셔서 딱히 생각해둔게 없다면 천천히 생각해두는 김에 자기 꿈 이루는 거나 도와달라고 하신거죠

(박 씨 땅에서 쇠파이프를 하나 발견한다. 이후 최대한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 땅바닥에다가 마구 갈고 있다.)

(연구원이 있는 발코니로 확대한다.)

연구원 : (E)그래도 여기는 어지간해선 이 땅의 표어에 부합하는 일들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꿈이라 부르는 것들이 무조건 아름다운 것만 있는건 아니란 거예요 사장님 꿈이 전임 사장과 기존 임원진들을 포항에 있는 용광로에 담가버린다는 꿈이 달성되는 모습을 제 육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박 씨, 계속 파이프를 땅에 갈고 있다.)

연구원 : (E)이제 와서야 저 한테도 꿈이란게 생겼는데 그 때쯤에 이젠 그걸 이룰 기회 자체가 더 이상 없다는 걸 깨닫게 된거예요 그럼 당신을 여기에 넣은 이유를 이제 설명할게요 저희가 진행 하던 프로젝트는 말로는 별로 어려운건 아니예요 텔레파시 그런건데 사람을 원격 조종하는 그런 능력인데 사람을 말 잘듣는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그리드 컴퓨터 같은 형태로 만들어 한명의 사람이 여러명의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지금의 역량으로 신체구조가 단순한 작은 벌레들을 원격 조종하는게 가능한 수준인데 이런 벌레들을 사람 뇌에 넣으니까 원하던 결과물이 나왔죠

(넓은 공간 귀퉁이에서 문이 열린다. 옷이 너털너털해진 걷는 시체들 6명이 걸어나온다. 그 중에서는 석 씨였던 시체도 있다. 시체들은 각자 몽둥이와 총 식칼등을 들고 있으나 파지법이 전부 제각각이고 이상하다.)

연구원 : 한번에 6개의 유닛밖에 조종못하는 실시간 전략 게임을 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연구단계라 총을 쥐어줘도 쏘지를 않고 몽둥이처럼 휘두르는 것 밖에 못하는 허접한
수준의 네트워크 같은거라 좀 시간이 흐르고 연구가 진보한다면 영화속에서 나올법한 엄청난 군
세로 사람들을 유린한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할텐데

(박 씨 걷는 시체들을 향해 마구 쇠 파이프를 휘두른다. 시체들은 맞아도 잠깐 움찔할 뿐 여섯이
서 박 씨를 포위하는 형태를 한 채 한꺼번에 달려든다.)

(F.O.)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크레딧이 중간정도 올라가다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엔딩 크레딧 중지)

연구원 : (E) 전화 받았습시다. 네, 사장님

연구원 : (E) 자료는 방금 사장님 단말기에 전송했습니다. 이제 겨우 6명 움직이는 수준이긴 합니
다만

연구원 : (E)

연구원 : (E) 남은 폐기물들은 절차에 따라 처분하겠습니다.

연구원 : (E) 여덟 번째 말입니까?...금시 초문인데요 잠시만요 보고서에 제가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몇 초가 흐른 뒤 이해했다는 듯이)아하~...아뇨 뭐 여기서 불만 제시
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지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랑 같이 있던 두 사람은...

(연사하는 총성이 여러 방향에서 들리다가 이내 잠잠해진다.)

연구원 : (E) 사장님이 직접 파견지시하신 직원들이라 그런지...**실력이 영...**아뇨 가족들이랑은 거의
의절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통화가 종료음)

(멀리서 군함발 소리가 작게들리다가 점점 가까이 크게 울려퍼진다.)

(권총 슬라이더 당기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총성이 울린다.)

(엔딩 크레딧 다시 진행)

-마침-